

고성 사회인 야구 최강자는 누구

제1회 고성군야구연합회장기 대회 10주간 열려 ... 4개팀 참가

고성지역 야구동호인들의 한마당 잔치인 제1회 고성군야구연합회장기 대회가 지난 20일 개막해 5월 29일까지 10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고성군야구연합회(회장 한원균)는 생활야구의 정착과 동호인의 저변확대 팀·동호인간의 친목도모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연합회장기 대회를 개최했다.

개막식은 지난 20일 오전 11시 송지호 구장에서 기관단체장 및 야구관계자, 선수, 가족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대회는 2003년 창단한 다이아몬드팀(간성)을 비롯해 2009년 창단한 레드팰콘스(고

성경찰서), 레디언스(거진), 퓨리어스(간성) 등 4개팀이 출전했다. 개막전은 퓨리어스와 레드팰콘스가 경기를 가졌으나, 우천으로 경기가 중단됐다.

이번 대회는 4개팀이 풀(Pool)리그 경기방식으로 6주간 순위결정전을 갖은 뒤 3주간은 조별리그를 갖고, 10주째는 토너먼트로 3,4위전과 결승전을 치른다.

또 볼드게임 없이 경기당 7회로 1시간 50분을 초과하지 않으며 승점제도를 도입해 1승에 3점, 무승부 1점, 패 0점으로 경기규칙을 적용키로 했다.

이번 대회는 매주 일요일 오전과 오후에 각 한개일씩 진행된다.



제1회 고성군연합회장기 야구대회가 10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 가운데, 지난 20일 퓨리어스와 레드팰콘스가 개막전 경기를 갖고 있다.

송지호 구장으로 나오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고성군야구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야구 저변을 확대하고, 야구인들의 화합과 단결로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이바

지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박승근 기자



진부령미술관이 3월 24일부터 6월 9일까지 2011년 제 1회 특별전시회 '아름다운 동행전(달홀그림)'을 개최한다.

고성지역의 관문인 백두대간 진부령 고갯마루에 있는 진부령 미술관이 3월 24일부터 6월 9일까지 2011년 제 1회 특별전시회 '아름다운 동행전(달홀그림)

미)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고성문화원 서양화 동아리반 '달홀그림'의 특별전시회로 지역주민의 미적 감각과 문화

진부령미술관 '아름다운 동행전'

3월24일~6월9일 ... 고성문화원 서양화반 주부들 작품

예술 향수의 기회를 증진시키고 진부령미술관의 대중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 24일 오후 1시 30분 진부령미술관 제1전시관에서 내외빈, 초청자, 작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컷팅식을 가졌다.

이번 달홀그림전에는 지도강사 정광섭 화백의 작품 '악·토왕성폭포' 등 2점을 비롯해 김경옥씨의 '노을', 문미정씨의 '별고소리', 심선영씨의 '나무동화', 장정여씨의 '가을골짜기', 함옥자

씨의 '가을호수' 등 20명의 작품 38점이 선보인다.

영동지역에서 35년간 미술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정광섭 화백은 “한달에 8회 4시간씩 고성문화원의 집에서 수업을 실시했다”며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온 주부들의 작품이지만, 각종 대회에서 특선 및 입선한 작품들만 전시해 수준이 높은 편”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진부령미술관은 연간 1만 1천500명이 관람하는 문화체험

공간으로 현대적 감각에 맞게 변모하기 위해 지난해 3월 10억의 사업비를 들여 리모델링을 추진해 지난해 10월 6일 완공했다.

고성군 관계자는 “지역주민 및 외지관광객의 미적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미술관의 건전한 육성 과 군민의 문화예술향수 기회를 증진시켜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시설로 키우겠다”며 “미술품을 감상하며 문화적 감동과 여유를 갖는 새로운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승근 기자

고성을 빛낸 호국인물 [4]

독립운동가 권형원(權亨源)

1855년 1월 23일 ~ 1907년 9월 17일

본적은 강원도 고성군(高城郡) 서면(西面) 송탄리(松灘里)이다. 다른 이름으로는 하교(夏敎)·하경(夏卿)이라 부른다.

1895년 12월경 여주·이천의병이 남한산성(南漢山城)을 중심으로 공방전을 벌이고 있을 때, 민용호(閔龍鎬)가 이끄는 관동구군장의군(關東九郡倡義軍)은 강릉(江陵)을 중심으로 강원도 동해안 일대에서 활약하고 있었다.

민용호의 강릉의병은 개항장 원산(元山) 공략을 목표로 북정(北征)을 떠나 주문진(注文津)·양양(襄陽)·간성(杆城)을 지나 1896년 1월 26일 고성(高城)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는 이때 일인 8명을 포박, 민용호에게 인계하여 참수토록 한 뒤 그 휘하에 들어가 활약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강릉의병 휘하 고성유

진장(高城留陣將)에 임명되어 항전을 벌였으나, 같은 해 6월 본진 강릉의병이 함경도 지역으로 북상함에 따라 그도 역시 을미의병(乙未義兵) 항전을 종식하게 되었다.

그 뒤 1907년 광무황제(光武皇帝) 강제퇴위와 군대해산을 계기로 의병이 전국적으로 확산, 격화되자 그도 의병항전을 재개하게 되었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17일 고성 남강(南江)전투에서 병력과 무기의 열세로 일군에게 대패한 끝에 일군에게 피체되어 총살당하였다. 그러나 일군은 잔인하게도 그 시신을 다시 단두(斷頭)하여 머리를 가져가는 만행을 저질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出典：『大韓民國 獨立有功者 功勳錄』 第 9卷, 國家報勳處, 1991年, pp.43~44.

註：△復齋集(閔龍鎬) 卷三 關東倡義錄 8面 △權義士行狀 △權義士中慰文 △確認書(高城郡 杆城砲校 典校) △義兵運動史(金義煥) 39面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1卷 224~232面

〈고성향토문화연구회 제공〉

(010-5373-2156)